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일시 2025. 9. 15. (월) 18:00
회의 장소 총학생회 회의실 (80414)
회 차 57 - 21
서 기 인사운영국장 전준민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유학대학
○	결석	○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	X	○
경제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	○	○
예술대학	글로벌리더학부	글로벌융합학부
○	○	○
동아리연합회		
○		

전체 단위 수: 12 (정족수 8) / 출석 단위 수: 11

단위별 사업 보고

1. 총학생회

- 가. ESKARA: 초록의 파도 진행 (9. 11.~9. 12.)
- 나. 건학기념식 관련 총괄지원팀 미팅 진행 (9. 15.)

2. 유학대학

- 가. ESKARA: 초록의 파도 유학대학 X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야간 주점 '숲옹이랑 유대랑 싸우나' 성료 (9. 11.~9. 12.)
- 나. 제23차 유학대학 집행부 회의 진행 (9. 9.)
- 다. 2025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대계열 학과탐색캠프 - 유학동양학과 부스 운영 및 설명회 진행 (9. 15.)

3. 문과대학

- 가. 제20차 문과대학 단위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9. 9.)
- 나. 2학기 문과대학 사물함 추가 신청 진행 (9. 9.~9. 14.)
- 다. 제21차 문과대학 집행부 회의 진행 (9. 10.)
- 라. 2025 문과대학 취업멘토링 참가 신청 진행 (9. 12.~9. 17.)
- 마. 문과대학 학생회칙 개정안 의견 수렴 (9. 14.~9. 16.)
- 바. 문과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예정 (9. 16.)

4. 법과대학

없음.

5. 사회과학대학

- 가. 담대한 대담 후속 조치 관련 행정실 미팅 진행 (9. 9.)
- 나. 2025-2 사회과학대학 인구구조 학술발표제 신청 자보 업로드 (9. 9.)
- 다. 제19차 사회과학대학 집행위원회 회의 진행 (9. 10.)
- 라. 2025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회 준비
 - 1) 체육대회 컨셉 자보 업로드 (9. 4.)
 - 2) 체육대회 신청자 모집 자보 업로드 (9. 5.)
 - 3) 체육대회 관련 TF 회의 진행 (9. 10.)
 - 4) 체육대회 타임라인 자보 업로드 (9. 14.)

6. 경제대학

- 가. 2025 경제대학 학술대회 ACE

- 1) 시상식 성료 (9. 9.)
- 2) 스케치 사진 업로드 (9. 11.)
- 나. 2025 경제대학 기업탐방 프로그램
 - 1) 네이버 단톡방 개설 및 참가자 초대 (9. 11.)
 - 2) 카카오 단톡방 개설 및 참가자 초대 (9. 11.)
 - 3) 한국거래소 단톡방 개설 및 참가자 초대 (9. 11.)
- 다. 성균관대학교 X 서강대학교 X 이화여자대학교 연합 학술제 3차 운영진 미팅 진행 예정 (9. 17.)

7. 경영대학

- 가. 제23차 경영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회의 진행 (9. 9.)
- 나. 2025학년도 2학기 진로콘서트 안내 자보 업로드 (9. 9.)
- 다. 경영대학 2학기 사물함 신규 신청 안내 자보 업로드 (9. 9.)
- 라. 경영대학 3분기 사업 보고 자보 업로드 (9. 10.)
- 마. 경영대학 3분기 학생회비 결산안 보고 자보 업로드 (9. 10.)
- 바. 제2회 창업아이디어톤 참여 기업 미팅 진행 (9. 10.)
- 사. EKSARA: 초록의 파도 경영대학 X 정통대학 야간 주점 '슈퍼 정통 X 경영 브라더스' 성료 (9. 11.~9. 12.)
- 아. 경영학과 과방 Festival 행사 진행
 - 1) 안내 자보 업로드 (9. 14.)
 - 2) 행사 진행 (9. 15.~9. 19.)
- 자. 경영학과 학과캠프 설명회 진행 (9. 15.)

8. 사범대학

- 가. 2025 ESKARA: 초록의파도 사범대학 X 성균융합원 연합 야간주점
 - 1) 사전예약 신청 안내 (9. 8.)
 - 2) 주점 진행 (9. 11.~9. 12.)
- 나. 2025 사범 올림픽 참가 신청 안내 (9. 9.)
- 다. 2025 사범 올림픽 E-SPORTS 대회 실수요조사 (9. 9.)

9. 예술대학

- 가. 2025-2 '수선관 5층 TV 공모'
 - 1) 자보 업로드 (9. 8.)
 - 2) 작품 모집 (9. 8.~9. 12.)
- 나. 제25차 예술대학 단위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9. 9.)
- 다. 제25차 예술대학 집행부 회의 진행 (9. 10.)
- 라. ESKARA: 초록의 파도 예술대학 X 스포츠과학대학 야간 주점 '에스 크리스마스' 성료 (9. 11.~9. 12.)



10. 글로벌리더학부

- 가. 글로벌리더학부 2025학년도 2학기 정기총회 진행 (9. 10.)
- 나. 글로벌리더학부 제2회 HOMECOMING
 - 1) 예산안 및 행사계획서 작성 (9. 14.)
 - 2) 재학생 신청 자보 업로드 (9. 15.)
- 다. 글로벌리더학부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9. 15.)
- 라. 글로벌리더학부 학생회칙 공포 (9. 15.)
- 마. 2025 학과탐색캠프 참석 (9. 15.)

11. 글로벌융합학부

- 가. 2025년도 글로벌융합학부 돛바 실수요조사 자보 업로드 (9. 8.)
- 나. 제17차 글로벌융합학부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9. 15.)

12. 동아리연합회

- 가. 연석 동아리연합회 주점 '스-파동' 성료 (9. 11.~9. 12.)
- 나. 제12차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9. 16.)



논의 안건 가. Campus plus+ 사업 후속 추진 논의

- 총학생회장이 논의 안건 가의 시작을 선포하다.
- 총학생회장이 안건을 설명하다.
 - Campus plus+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건을 이미 학교 측과 시찰 후 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고 보고하다. 재원이 크게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2학기 중 추가 요청이 있다면 검토하여 올해 혹은 내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다.
 - 총학생회는 Campus Plus+ 사업과 관련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기획팀에 전달하고, 사업의 장점과 보완점을 논의한 후 차기 총학생회에 인수인계할 계획임을 설명하다. 또한 본 사업의 연속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음을 밝히며, 차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학교 본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초를 다지겠다고 발언하다.
- 총학생회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선포하다.
- 문대 회장이 문과대학 10개 학과 중 영문과를 제외한 다산경제관 지하 1층을 사용하는 9개 학과와 문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해당 공간 개보수 논의를 합의하였으며, 문과대학 행정실 및 관리팀과 협의한 결과, 학생회와 관리팀이 함께 개보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하다. 다산경제관 지하 1층에는 문과대학 외에도 경제대학 소속 통계학과, 사회과학대학 소속 아동청소년학과 및 소비자학과가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학과와도 동등한 주체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다. 이에 따라 행정실 및 관리팀과의 미팅 이전에 해당 학과 대표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고자 하며, 이를 경제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회장단에게 확인 차 질의하다. 또한 임기 내 공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과방 전면 개방을 통한 라운지화 공사가 두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라운지화 가능성에 관해 의견을 재수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다. 다만 이번 논의의 방향은 소규모 공사보다는 현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공사 추진에 있다고 첨언하다.
- 총학생회장이 문과대학 측에서 희망하는 방향이 간헐적인 개보수가 아니라 라운지화 등 대대적인 공사인지 질의하다.
- 문대 회장이 라운지화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현재 구상은 문과대학의 현안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개보수안이라고 설명하다. 다만 해당 방안은 과방 공간 분할이 사라지는 방식이므로, 라운지화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관 지하 1층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답변하다. 또한 학과 단위의 동의와 관리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다.
- 총학생회장이 과거 예산기획팀과 시찰 시 제기되었던 쟁점이 공간 간의 틈 확보 문제였음을 언급하다. 당시 제안된 방안은 학생자치공간을 유지하면서 벽을 철거하고, 글로벌융합학부와 같이 유리 통창으로 공간을 분할하는 형태였으나 재작년에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하다. 이어 문과대학 측에서 최소한 학생자치공간 보장을 전제로 라운지화 또는 개보수 진행을 희망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문대 회장이 맞다고 답변하며, 단과대학운영위원회 내 논의 결과 벽을 철거할 경우 소음이나 냄새 유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정도의 공사가 아니고서는 현안 해결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이 협조 요청의 구체적 사안이 다산경제관 지하 1층 관련으로, 아동청소년학과와 소비자학과는 사회과학대학, 통계학과는 경제대학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다.
- 문대 회장이 맞다고 답변하며, 다산경제관 지하 1층을 사용하는 세 학과 대표자들과만 논의를 진행해도



충분하고, 각 단과대학 회장단이 참석해도 무방하다고 발언하다.

- 경제대 회장이 통계학과 과방의 열악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통계학과와 함께 논의할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 사과대 회장이 Campus plus+ 사업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다. 다만 소비자학과와 아동청소년학과는 현재 과방 환경에 만족하고 있으며 비교적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라운지 추진 시 과방 분할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다. 이에 따라 해당 학과들이 동의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올해 내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발언하다. 아울러 단과대학 차원에서 논의 틀을 마련한 뒤 차기 학생회에 인수인계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총학생회장이 학과 단위 논의와 단과대학 학생회 차원 논의의 필요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다. 다만 올해 추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내년에 공사가 가능하므로, 차기 학생회로 이관할 경우 해당 연도에도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다.
- 경제대 회장이 개보수의 방향성에 관해 질의하다.
- 문대 회장이 세 학과와 논의 이전에 방향성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다. 현재까지 확정된 방향성은 없으며, 관리팀과 함께 논의하여 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과 학생회도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 경제대 회장이 개보수가 단순히 낙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문대 회장이 낙후된 시설 보수도 공사 요청 범위에 포함되지만, 다산경제관 지하 1층은 완전 지하와 반 지하 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습기, 해충, 환기 문제 등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다. 단순히 일부 시설을 수리하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공간 전반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다. 관리팀 또한 개별 시설 보수보다는 전체적인 공사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다.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공사는 방학 중 진행될 수밖에 없어 차기 총학생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다. 문과대학 내에서도 합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타 단위와의 논의도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고 발언하다. 그러나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내년 상반기 중 합의가 완료되고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차기 학생회가 신입생 새터 및 개강 준비 등으로 일정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이번 학기 중 최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차기에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설명하다. 또한 아동청소년학과와 소비자학과가 현재 공간에 만족하고 있을 수 있으나, 구조와 규모 차이로 학과별 여건이 상이하므로, 이들의 만족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적인 개보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다.
- 총학생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며, 2023년도 퇴계 R&E 라운지 개설 당시 사례를 언급하다. 다산경제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아동청소년학과와 소비자학과 과방의 일부 공간 이전 논의 과정에서, 두 학과가 자치공간 축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사를 표한 바 있다고 설명하다. 이를 예로 들며 학과의 기조나 설득 방식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에도 학과 단위와 논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중집위장이 작년에도 사과대학 라운지 조성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학과와 소비자학과 과방을 소모임실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당시 두 학과가 공간 축소에 강하게 반대했음을 언급하다. 다만 당시에도 창틀 누수나 습기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번 문과대학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공간 구성보다는 전반적 컨디션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협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 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협조할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다.
- 문대 회장이 문과대학 9개 학과와 행정실은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통계학과·아동청소년학과·소비자학과와



관리팀의 논의 결과에 따라 공사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하다. 1차 회의 이후 총학생회 Campus plus+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기획팀과의 소통을 총학생회에서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다. 또한 1차 회의 진행 이후 총학생회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다.

- 총학생회장이 세 단위와 내부 조율 후 1차 회의 결과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다. 아울러 예산기획팀에 문과대학 측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전달하겠다고 첨언하다.
- 사범대 회장이 호암관 3층의 기존 스타트업 라운지가 산학협력단 사무실로 전환되면서 현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사라졌다고 설명하다. 총학생회 차원의 후속 논의를 요청하며, 호암관은 사범대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대학, 야간 대학, 교양 수업 등 다양한 학우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이를 고려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호암관에 다시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하다.
- 총학생회장이 스타트업 라운지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 질의하다.
- 사범대 회장이 해당 공간이 '서울 RISE 글로벌 혁신 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산학협력단 부속 사무실로 전환되었으며, 형식적으로 산학협력단 소유 공간이어서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다. 다만 학생들이 사용하던 라운지가 사라진 데 대한 대체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다.
- 총학생회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전달받으면 예산기획팀과의 미팅 시 함께 공유하겠다고 답변하다. 아울러 이번 주 중 예산기획팀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문과대학 건물은 사실 전달 차원에서 공유하고 사범대학 누수 건물은 계속 검토 중이므로 답변이 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보고하다.
- 총학생회장이 논의 안건 가의 종결을 선포하다.

기타 안건 가. ESKARA: 초록의 파도 피드백 진행

- 총학생회장이 기타 안건 가의 시작을 선포하다.
- 총학생회장이 안건을 설명하다.
 - 올해 ESKARA를 진행하며 대운동장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주점 규모 확대, 콘텐츠 개선, 킹고음 원단과의 협업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음을 보고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다. ESKARA가 4년째 이어지는 연속적 행사인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차기 총학생회에 인수인계하여 향후 행사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피드백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선포하다.
- 글웅 회장이 축제 준비와 진행에 노고가 많았음을 전하며 감사 인사를 하다. 다만 올해 티켓 부스가 복지회관에 위치하여 축제 장소와 거리가 있어 인사캠 학생들이 찾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지적하다. 이에 따라 내년 ESKARA 진행 시에는 티켓 수령 부스, 짐 검사 부스, 축제 장소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이 여러 장소를 검토했으나 공간상의 제약으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입장 시스템 운영 방식은 총학생회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다. 올해와 작년 대동제 진행 시에도 티켓 수령 직후 곧바로 입장하지 않으면 동선 혼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티켓 수령과 짐 검사 부스를 분리 운영했다고 설명하다. 이는 2023년에도 유사하게 국제관 앞에서 티켓 수령, 학생회관 필로티에서 짐 검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었다고 첨언하다. 자연과학캠퍼스의 지리적 구조상 불가피한 점이 있었으나, 인사캠 학생들이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이 있었던 점을 인지했으며, 향후 개선하겠다고 발언하다.
- 유대 부회장이 구령대 게이트 짐 검사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반입 금지 물품을 인지하지 못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보고하다. 특히 중국인 학생들의 경우 영어 소통이 어려워 안내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처리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다. 이에 따라 게이트 앞에 그림으로 금지 물품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대운동장 내부에서도 우산, 휴대용 스톨 등의 반입 사례가 있었으므로, 외국인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안내 방안 마련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이 당시 온라인 자보와 엑스배너를 통해 반입 금지 물품을 안내하였으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답변하다. 외국인 학생 지원을 위해 복지회관 티켓 부스에는 별도 인력을 배치했으나 구령대 게이트에는 미처 배치하지 못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다. 향후 대운동장에서 진행하거나 입장 부스를 분리 운영할 경우, 외국인 민원 대응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해당 사항을 차기 총학생회에 인수인계하겠다고 보고하다.
 - 유대 부회장이 짐 검사 과정에서 장우산은 반입 불가나 단우산은 가방에 넣어야 하는 등 세부 안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려웠다고 보고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다. 또한 대운동장 무대 앞 펜스가 튼튼하지 않아 기댈 수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학생들이 펜스 구멍에 고리를 걸어 가방을 거는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해당 부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다.
 - 총학생회장이 외국인 대상 정보 제공과 관련해 아쉬운 점을 언급하다. 일부 타 대학 축제에서는 중국어 안내까지 제공하나, 우리 학교는 하이클럽 등 외국인 관련 단체에 번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하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라 정보 제공 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향후 총학생회가 이어가며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다. 또한 장내 관리와 관련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모든 경우를 지침으로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다. 대신 각 구역 총괄과 실무단 간 소통 체계를 개선하여 현장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견 제시에 감사의 뜻을 표하다.

- 유대 회장이 늦게 도착한 주점 운영진에게 입장 티켓 배부가 어려웠던 상황을 보고하다. 주점 운영이 파트별로 진행되다 보니 입장 시 본인이 운영진임을 증명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총학생회 차원에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에게 운영진 확인용 PDF 파일 등 임시 증빙 자료를 배부하면 편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하다. 또한 킹고응원단 콘셉트와 관련하여, 연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응원 문화가 크게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성균관대에 지원할 때 전통적인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경험을 언급하다. 전통을 상징하는 유생복 착용 등 전통적 요소를 가미한 응원 방식을 도입한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이 킹고응원단 관련 사항은 총학생회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밝히다. 다만 킹고응원단 및 총학생회 모두 전통 콘셉트와 관련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의 필요성도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하다. 그러나 다양한 학생들의 선호를 모두 만족시키는 무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다. 이어 2022년부터 4년간 전통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청량과 협업을 진행했으나, 비슷한 진행 방식으로 진행해와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첨언하다. 연고전 응원 문화와 비교했을 때 성균관대학교의 응원 문화는 아직 4년 차로 축적된 역사가 짧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전통적 가치 반영 여부는 향후 총학생회·킹고응원단·청량이 함께 논의해 나갈 방향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 유대 회장이 주점 운영진 임시 출입 PDF 발급과 관련한 총학생회 측의 입장을 질의하다.
 - 총학생회장이 임시 출입 PDF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일괄 공지할 수밖에 없으나, 각 단위가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다. 대표자 전달 과정에서 전파가 누락될 가능성도 있어 총학생회가 일괄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는 모호하다고 언급하다. 또한 대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프로세스였던 만큼 혼란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PDF 발급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다. 다만 해당 문제는 복잡성이 크지만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며, 추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다.
- 사범대 회장이 양일간 연합주점 운영 과정에서 무대 안쪽 주점에서 바깥쪽 주점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있었다고 보고하다. 바깥쪽 주점은 시야가 제한되어 주점이 이중으로 배치되는 구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다. 또한 사범대학 주점은 무대 펜스와 인접해 통로가 없어 사람들이 주점을 통로처럼 이용하였으며, 아티스트 공연 종료 후 이동 과정에서 혼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다.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통로를 확보하여 주점 거리의 흐름을 원활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이 전기 설치의 특성상 주점 배치를 일렬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개별 단위의 운영 부담을 고려해 운영동을 무대 방면에 배치했다고 설명하다. 그러나 건너편 주점 인근을 아티스트가 이동하면서도 관객이 해당 구역을 가로질러 불편이 발생한 것에는 유감을 표하다. 초기 논의 과정에서 캐노피 가림막을 통한 물리적 차단 방안도 검토했으나, 단위들의 자율 의견을 존중해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다. 이번 사례는 대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문제였다고 평가하며, 추후 유사한 운영 시에는 이번 경험을 토



대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하다.

- 총학생회장이 기타 안건 가의 종결을 선포하다.



기타 안건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내

- 총학생회장이 기타 안건 나의 시작을 선포하다.
- 총학생회장이 안건을 설명하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절차 및 유의 사항에 관해 안내하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세부 일정을 안내하다.
- 총학생회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선포하다.
- 경제대 회장이 관련 일정을 추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지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총학생회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 사과대 회장이 단과대학 선관장과의 병행 여부와 관련하여 총학생회 회칙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하다.
- 총학생회장이 별도 규정은 없으며 단과대학 회칙을 따르면 된다고 답변하다.
- 총학생회장이 경제대학 회장의 요청과 관련하여 공지방에 안내를 게시했다고 언급하다.
- 총학생회장이 간단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참여 의사를 확인하다.
- 경영대 회장, 경제대 회장, 경제대 부회장, 글리 부회장, 문대 부회장, 사과대 회장, 동연 회장이 참여 의사를 표하다.
- 총학생회장이 기타 안건 나의 종결을 선포하다.

추가 안내 사항 및 질의응답

- 경영대 회장이 학생회비 추가 납부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여, 학생회비 배분안 공유 시점을 질의하다.
- 총학생회장이 최소 2~3주는 더 소요될 예정이라고 답변하며, 1학기에도 4월 말경에 확정되었음을 언급하다.
- 경영대 회장이 배분안 표의 공유 시점도 늦어지는지 재차 질의하다.
- 총학생회장이 현재 재무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정리해 계산 후 안내할 수 있으나, 긴급한지 여부를 확인하다.
- 경영대 부회장이 이전에 안내받은 금액보다 추가 납부가 있었을 것이라며 총액만이라도 공유 가능한지 질의하다.
- 총학생회장이 총액만으로는 산출되지 않으며, 내일 재무팀에 요청하면 계산된 수치를 안내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다만 현재는 중간 이탈에 따른 환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다. 초과 학기 등록생 납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수치는 확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긴급히 필요한지 질의하다.
- 경영대 회장이 다음 주 예정된 경학대회 예산안 관련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하다.
- 총학생회장이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다.
- 중집위장이 내일 기준으로 학생회비 납부 현황을 학교 본부로부터 전달받아 전체 단위 대상 배분안을 다시 계산하여 공유할 것이라고 보고하다. 다만 이는 최종 확정안과는 소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학생대표자회의 전에는 내일자 배분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다.
- 문대 회장이 문학대회가 내일 19시에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다.
- 중앙집행위원장이 빠르게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다.

09월 15일 19시 33분 총학생회장이 제21차 중앙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하다.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총학생회장

정진우

부총학생회장

조은채

유학대학

송승현

문과대학

장태진

사회과학대학

배상영

경제대학

최휘철

경영대학

윤호준

사범대학

박영웅

예술대학

김연희

글로벌리더학부

장한결

글로벌융합학부

한사람

동아리연합회



상기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9월 22일